

우리나라 金鑛業의 歴史的 考察(略史)

秦 秀 雄※
(韓國資源開發研究所長)

1. 緒 言

全世界의 工業用 金의 需要가 해마다 急增되고 있는 “Gold Rush”를 맞이하여 國內 金鑛業의 健全한 開發과 合理的인 育成策을 마련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祖上들께서 남기신 歴史的 발자취를 再考하여 봄도 바람직한 일이라 思料된다.

即 우리나라의 金鑛業은 過去 諸般地下資源의 主軸을 이루어 왔음으로 金鑛業이 모든 鑛業의 代名詞처럼 불리어 왔고 近世史에 이르러서는 우리 國土를 世界列強들의 角逐場으로 誘導한 觸媒가 되기도 하였었다.

따라서 筆者는 金鑛業의 歴史的 事實들을 參考로 하여 보다 詳實한 現實的인 金鑛開發에 多少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古文獻中에서 貧弱한 資料나마 蒐集하여 보았고 이를 要約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음을 添言하는 바이다.

2. 三國時代以前

三國時代 以前에 있어서 金鑛業에 對한 記錄은 全無하나 慶南金海地方의 貝塚(배총)에서 土器, 骨器, 鐵器, 銅器等과 함께 金銅製의 貨泉이 出土되고 있고, 樂浪文化 遺跡地에서도 金銀銅器와 함께 貨泉과 漢의 貨幣類가 出土되고 있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貨泉은 漢의 天鳳元年(AD14年)에 처음으로 製造되었던 것임으로 三韓에서 貨泉을 使用하였던 時期는 其後 數十年 後인 AD 50~100年 頃으로 推定된다.

※ 鑛業技術士(採鑛)

漢의 樂浪郡 統治는 AD300年頃까지였음으로 이때는 이미 漢文化의 影響을 받아 金, 鐵器 時代를 맞이하여 本格的으로 金銀銅鐵을 使用하게 되며 우리나라가 金을 開發, 採取 活用하였던 時期는 AD200年頃으로 思料함이 當을 것이다.

當時 우리나라의 生活風習을 描寫한 晉初(後漢 AD285年) 陳壽作인 三國志 東夷傳에 記錄된 것을 보면,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 朝鮮濊貊(예맥)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中略)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中略) 厚葬金銀財弊盡送死, (中略) 辨辰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 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郎(二郎은 樂浪郡과 帶方郡을 말함)이라 記錄되어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볼때 AD50年頃에서 AD300年까지는 우리 민족이 石器 및 鐵器를 混用하였던 過渡期로, 이때 이미 金의 採鑛術과 이를 冶金하여 細工活用하는 技術이 널리 補給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D720年, 舍人親王, 太保萬侶 共著 日本書記神代期에도 이에 對한 記錄이 有함)

3. 三國時代(AD400~900)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金, 銀을 本格的으로 開發, 活用하였던 時期로 裝身具, 彫刻, 貨幣代用 및 物物交換의 決済手段으로 또는 隣接國의 朝貢用으로 쓰여있다는 記錄이 三國時代 古墳出土品에서 나타나고 있다.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다음에는 鑛業이 크게 盛行하였음으로 鐵鑛典 또는 築冶房이란 官廳을 두었음이 三國史記에 記錄되고 있다.

이때 主要한 記錄들을 拔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三國史記高句麗本記 文咨明王十三年(AD 504)

夏四月遣使人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蒸弗於東堂, 蒸弗進日.

※ 寶藏王三年(AD644) 九月莫離支貢白金於唐

※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二年(AD663) 二月六日庚信遣阿浪良圖大監仁仙等, 致軍糧, 贈定方(定方은 唐將) 以銀五千七百分(下略)

※ 新羅文武王九年 春正月唐僧法安, 來傳天子命, 求磁石, 夏五月王遣祗珍山級浪等, 入唐獻磁石二箱.

※ 新羅文武王十二年八月 王以向者百濟往訴於唐, 請兵浸我, 事勢急迫, 不得申奏, 出兵討之, 由是獲大朝, 遂遣(中略) 上表乞罪, 兼進貢, 銀二萬三千五百分 銅三千分(中略) 金百二十分(下略).

※ 新羅聖德王二十二年(AD723) 夏四月遣使入唐獻(中略) 金銀等.

※ 新羅聖德王二十九年春二月遣王族朝唐獻(中略) 金二千兩.

上記以外에도 聖德王三十二年十二月 金五百兩, 銀二千兩을, 同三十三年四月金五百兩, 銀二十兩을, 新羅孝成王三年 金三十兩을, 新羅惠恭王九年(AD774), 憲德王二年, 景文王九年(AD 870)에도 王子를 唐에 보내여 金一百兩, 銀二百兩을 보냈다는 記錄이 有하다. 以外에 高句麗도 隋의 侵入을 막기 爲하여 日本에 金銀을 보내여 後援을 要請하기도 하였고, 百濟는 AD285年頃 百濟琳聖太子가 日本에 鑛業技術을 傳하기도 하였다고, 三國史記(高麗時代 AD145金富賦著)와 東國通鑑(李朝時代 AD1485徐居世著)에 傳하여지고 있다.

以上을 要約하여 볼 때 三國時代 金鑛業은 黃金時代를 이루었고, 特히 外交의 方法의 去來를 金이나 銀으로 決濟하였음은 勿論, 新羅에서는 三國統一後 採金術, 鍊金術, 加工術의 極致를 이루어 名實共히 國內의으로나 對外的으로 安定된 富國을 形成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王朝時代(AD 1000~1400)

王朝時代(高麗時代)에 이르러서는 佛敎文化의 復興과 더불어 鑛業開發에 消極的인 時代이었으며, 元에 朝貢을 보내기 爲하여 必지못하여 조금씩 開發하였다는 記錄이 有할 뿐이다.

이들 記事中 主要한 記錄을 拔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即 高麗史(1451年 李朝의 鄭道傳著)에 記錄을 보면,

“元宗十四年五月, 己卯命判事 朱悅, 伴元使, 採金南方.

忠烈王二年秋七月丙午元遣使, 來採金, 癸丑採金于洪州, 只得二錢

忠烈王三年此歲前軍器主簿洪宗老, 欲賞其子仁伯罪, 說達魯花赤, 以謂多識產金處, 於是遣國學直講崔錫, 卒宗老, 採金于洪州稷山旌善, 役民一萬一千四百四十六名七十日, 獲得七兩九分.

高麗顯宗十四年(1022) 五月, 旌善縣에서 銀鑛이 發見되고, 毅宗二十四年水州(?)에서 金塊가 發見되었다고 하며, 文宗三十六年(1018)三月 羅州牧下 洪原縣에서 黃金一百兩, 白銀一百五十兩짜리 金塊가 發見되었다는 記錄이 高麗史中 記載되어 있다.

高麗末에 있어서는 元에 朝貢을 받치고져 掌治署를 設置하고 各 地方에 監鐵別監을 두어 每年 黃金 1,000兩, 白銀 2斤, 白赤銅 50斤, 鐵 200斤을 上納하게 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5. 李氏朝鮮時代(AD1500~2000)

李太朝는 크게 冶金業을 復興하고 世宗(1420年頃) 二年에 이르러서는 産金에 힘써 金鑛을 發見하는 者에게는 官職까지 주었었다.

그러나 其後 金銀때문에 明과의 關係가 復雜하여지자 採金은 勿論 金銀裝飾品까지도 使用을 못하게 하였다. 1592~1598年 壬辰亂때 日本人 加藤清正은 咸南端川所在 德檢鑛山에 銀 奉行을 두어 豊原秀吉에게 金, 銀을 獻納하였

다. 仁祖十五年(1637年頃), 明이 亡하고 清이 興하자 淸과 國交를 再開하게 됨에 따라 金銀을 다시 淸으로 보내게 됨으로 孝宗九年(1658年) 採金을 再開하였으나 全部 官營으로 開發하였으므로 消極的이었다.

李朝末에 이르러 牧民心書에 依하면 茶山 丁若鏞, 申欽等은 採金은 두가지 폐단, 卽 첫째 農事를 妨害하게 되고, 둘째 亂을 불러일으킨다 하여 反對하였다.

其後(牧民心書 1821年丁若鏞지음) 1651年(孝宗二年) 坡州, 交河, 谷山, 春川, 公州等에 鑛務官을 派遣 採金하였고,

1706年(肅宗 62年) 平南慈山, 京畿江華 金田地區를 採金地로 定한.

1775年(英祖 51年) 全國에 23郡으로 擴張開發하였고,

1780年(正祖四年) 平北成川을 追加開發하였다.

1794年(正祖十八年) 黃海道遂安을 새로히 開發하였다.

1806年(純祖六年)平北雲山郡等 數個郡을 直營으로 開發하다 一年만에 閉鎖하였음. (李萬雲著 萬機要覽, 麻生財政史에 記錄되어있음)

1807(純祖七年)에는 成川, 安東, 江界等 三個所만 存續시키였을 뿐이다.

6. 近世時代(AD1864~)

1864年 大院君이 執政하자 其間 禁止되었던 鑛業을 許可하여 徵稅의 目的物로 하였고 所謂 金鑛의 外國人 特許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1885年 外國人에게 鑛業權을 開放하자 英國商事 “저다인 버디슨 CO”가 稷山鑛山을 開發하였으나 失敗 하였고. 1891年 日本人 馬木이 馬山金鑛을 粗鑛하였다.

1896年 露人 “니시켄스키”가 咸境北道 肅寧, 淸原, 두郡의 金鑛을 粗鑛하였고,

1896年 美國人 “해틀”이 Oriental Mining Co-Consolidated Co 를 設立, 平北 雲山郡 一圓 一切 鑛物을 二十五年間 粗鑛 開發하였다.

1897年 獨人(원더) 世昌洋行이 江原道 金城郡의 金鑛을,

1898年 英國人 “레이”와 “무덕”에게 黃海道 殷山金鑛을,

1900年 日本人에게 稷山金鑛을 1901年 佛人 “산라엘”에게 平北昌城金鑛을,

1905年 英國人 “키어슨”에게 黃海道 遂安金鑛을, 二十五年間 各各 粗鑛하여 주었다.

1906年 七月 鑛業法이 처음 制定公布되고,

1921年 現鑛業法이 制定되었다. 其後 1919年 一次大戰 終了로 大部分의 金鑛을 閉鎖하였고,

1931年 滿洲事變, 1937年 支那事變 등으로 다시 金이 必要하여지자 1937年 朝鮮產金令이 公布되고, 1938년에는 重要鑛物 增產令이 公布되어 金鑛의 全盛期를 맞이하였었다. 그러나,

1941年 二次大戰이 發生되자 金鑛보다 其他 軍需用鑛物의 開發이 至急하게 되자,

1942年 朝鮮金山整備令을 公布하여 모든 國內 金山은 다시 休鑛하게 되었다.

1945年 八月十五日 解放과 더불어 消極的인 開發이 一部 鑛山에 이루어졌었으나 現今까지 거의 休鑛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7. 結 言

上述한마와 같이 우리나라 金鑛은 其間 主로 外交의 決濟物로 어느 時代에나 늘 重要한 役割을 하여왔고, 다음이 工藝品化하여 價値退藏用으로 使用되어 왔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金鑛業이 繁盛하였던 新羅統一時代나 李祖 世宗大王때는 國運이 繁昌하였었고, 其他 時代는 對外的으로 늘 外勢에 시달림을 받거나 對內的으로 經濟的 窮乏을免치 못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特히 近來에 이르러서는 金의 活用途가 다음과 같이 多邊化되어가고 있다.

1. 工業用으로
2. 對外決濟準備資産用으로,
3. 國際的인 金의 退藏用으로

其 需要가 날로 急增되어가고 있는 現實임으로 工業化의 基盤을 닦고 中進國際列에서 先進國際列을 向하여 邁進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經濟實情으로는 金鑛의 再開發이 時急한 當面 課題의 하나라 思料되는 바이다.